

◇ 회의 참가 보고

제18회 국제과학사회의

김 기 협
제 명 대

1985년의 버클리 회의 이후 4년만에 열린 국제과학사회의는 1989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반부를 함부르크에서 가지고 7일에서 9일까지 뮌헨에서 그 후반부를 가졌다. 반세기전(1940)에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과학사회의가 제2차세계대전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일 때, 이번 회의의 일반주제가 “과학과 정치질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진다. 게다가 이번 회의를 놓고 서독의 양대도시인 뮌헨과 함부르크의 발언권을 어느쪽도 물리칠 수 없어 두 도시에서 나누어 열게 되었다는 정황 설명도 또한 일반주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48개국에서 온 1,100여명의 학자들이 등록한 이 회의는 9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발표회를 중심으로 6편의 주제강연, 포스터 전시장, 각종 실무·분과회의, 일련의 사교행사와 IUHPS/DHS(국제과학사·과학철학연합의 과학사부) 총회 등을 포괄한 것이었다. 7일에 걸쳐 열린 거대한 발표회는 12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이것이 다시 진행의 기본단위가 되는 100여개의 분과로 구분되어, 대부분의 시간에 10개 이상의 분과발표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엄청난 규모의 것이었다. 발표와 토론, 회의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언어로는 독일어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이 승인되어있었지만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뜻을 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영어를 쓰려고 애쓰는 모습이였다.

우리 한국과학사학회 회원으로는 전상운·송상용교수, 성영곤 회원과 필자, 네 사람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에 갔고, 마침 함부르크대학에 유학중인 임경순 회원이 참석했다. 송상용교수가 과학기술사 교육분과에서 “한국의 과학사교육”에 대한 발표를 했다. 85년 버클리 회의는 물론, 81년 부쿠레슈티 회의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학자들의 참석과 발표가 적었던 것이 다소 서운했지만, 이 회의에 처음 참석해 보는 필자로서는 여러가지로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다. 이번 회의에 우리보다 많은 참석자를 보낸 나라가 30개국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과학사 학계의 성장이나 국력 신장에 비추어 보아 1993년의 사라고사(스페인) 회의에서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IUHPS/DHS와 이 회의에 대한 우리 학회의 기여가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1,000편에 육박하는 발표 가운데 필자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몇십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니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더듬는 격으로 구경한 셈이지만, 뜻밖으로 생각한 것은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진 동아시아의 전통과학이나 서양과학 수용에 관한 발표가 몹시 적었던 것이었다. 발표회의 전체적인 구성이 일반주제(“과학과 정치질서”)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유럽과학사와 근·현대 과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과학사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Science in China, 제6차 회의가 1990년 8월에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열릴 예정임)쪽으로 많은 발표가 집중되는 까닭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조직위원회가 여러가지 관광코스를 준비해 놓은 것은 하나도 따라 나서 보지를 못했지만 함부르크의 회의장을 둘러싼 공원이니 뮌헨의 회의장과 연결된 도이체스 무제움에서는 들을 만한 발표가 끊어질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몇차례의 사교행사에서는 눈과 귀를 각별히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함부르크대학에서의 와인·치즈 파티와 도이체스 무제움에서의 맥주·소시지 파티에서



초대연회에서 뮌헨시장과 함께

는 독일음식의 풍미를 맛볼 수 있었고 BMW 자동차회사의 리셉션에서는 재미있는 자동차박물관을 구경하고 회의기간을 통해 가장 푸짐했던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함부르크에서는 참석자 전원을 시장이 초대해서 음료를 대접했는데, 마시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시청건물의 내부를 잘 구경할 수 있는 기회라서 모두들 좋아했다. 한편 뮌헨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필자보다 중요한 인물들)만이 시청으로 초대받았는데, 필자는 전원이 초청된 것으로 잘못 알고 초대장도 없이 밀고 들어가 불청객으로 잘 얻어먹고 나왔다. 두 도시의 리셉션 스타일이 다른 것에 대해 두 시장의 소속정당 색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함부르크는 SPD, 뮌헨은 CDU) 사람들끼리 나중에도 웃기도 했지만 뮌헨의 시청 건물이나 연회실이 함부르크에 비해 작고 아담한 때문이기도 했을 것 같다.

총회에서는 규칙개정, 기구개편, 각 위원회 위원 개선 등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결정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식이고 또 필자가 처음 참석한 것이어서 그 의미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단, 다음 회의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데는 스페인과 멕시코가 경합하여 며칠 전부터 홍보와 로비를 해 왔기 때문에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었는데 투표결과 스페인이 압승했지만 필자가 받은 인상으로는 멕시코가 진지하게 경쟁한 것이 아니고 스페인으로 결정하는 장면을 화려하게 해 주기 위해 들러리를 서 주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학회도 다음 번이나 그 다음 번에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한번쯤 들러리를 서 주고 나서 장차 정말로 개최할 만한 기회를 노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최측에서 주선한 등급의 호텔에 송상용교수와 함께 회의기간 내내 묵었는데, 함부르크에서 배정된 호텔은 국제적인 명성의 적산지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낯익은 놀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색다른 밤거리의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재미있었던 것은 함부르크에서 뮌헨으로 옮겨가는 여행이었다. 이 회의를 위한 특별열차를 타고 9시간 남짓 달리는 동안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주제에 따라 방을 옮겨다니며 토론을 벌이니 창밖의 풍경을 내다볼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미국 참가단이 총회에 제출한 몇가지 건의 가운데는 다음부터 하나의 회의를 두 도시에서 나누어 개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워낙 빠박하게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다양한 토론을 위한 기회가 있었던 것은 과히 나쁘지 않았던 일이라고 생각된다.